
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			 대한민국 대정환 한국판뉴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후 즉시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담 당 자	김 경 문 사무관 (02-2100-2824) 김 나 혜 사무관 (02-2100-2836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김 형 원 팀장 (02-3145-8040)
	은행연합회 상무 김 평 섭(02-3705-5050)		여 인 채 부장 (02-3705-5704)

제 목 : 전세·잔금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□ 10.14일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, 주요은행 등과 전세·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

◆ **일시 / 장소:** '21.10.14.(목) 14:30 ~ 15:30 / 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
 ◆ **참석:** (금융위원회) 금융정책국장, 금융정책과장
 (금융감독원) 은행감독국장
 (은행연합회) 상무 (은행) 농협·신한·국민·우리·하나은행 부행장

- 금일 회의에서는,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최근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상황을 점검하고,
- 특히, 가계부채 관리강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.

□ 첫째,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, 4/4분기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.

- 다만,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, 여신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기로 하였습니다.

- 둘째, 4/4분기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- 이를 위해 금융위·금감원·은행연·은행 등 금융권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관련 정보를 공유하며,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.
- 같은 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,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문제발생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규모도 큰 만큼,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.

 <small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small>	 <small>중재서비스</small>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fsc@korea.kr	 <small>합병관리청 콜센터</small>
--	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